

이에 지난 2019년 농업용 공공관정의 선량한 관리와 체계적인 지하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공사와 지자체는 '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 및 노후관정 정비사업'에 착수해 공공관정에 대

한 정보지도를 구축하고 정기점검 및 관정정비를 진행하고 있다.

공사는 사업을 통해 지하수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관정 정비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이 깨끗한 지하수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공급체계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.

김종성 본부장은 "한국농어촌공사는 국내 최고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서 농어촌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개발·이용 방안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[경기신문 = 장진 기자]